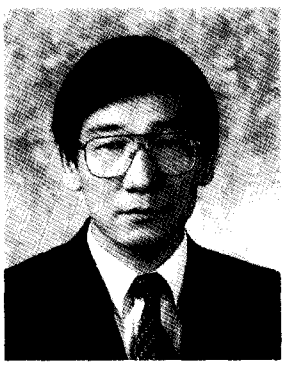
50주년 기념 전기재료기술 특집을 내면서

이 영 희

(광운대 교수 · 전기재료연구회 간사장)



전기재료 연구회는 1975년 전기회관 강당에서 처음으로 학술발표 대회를 시작하여 금년에 제 31 회 학술대회를 한국 전기연구소에서 발표하게 되었으며, 1000여 명의 회원들이 매년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우리나라의 전기재료분야 전반에 걸쳐 크게 기여하여 온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분야의 연구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전기산업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전기재료 분야의 발전이 없이는 다른 분야의 발전이 어려운 점을 감안 한다면 전기재료 분야의 발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연재료, 도전재료, 반도체재료, 고분자재료, 세라믹재료, 초박막재료, 기능성소자, cable등 기존의 재료 분야외에 최근에는 그 분야가 더욱 넓어지고 세분화 되어가고 있으며, 초박막, 초집적, 초기능성등 대부분이 기술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어가는 실정에 맞추어 저희 전기재료 분과에서는 지금까지 11분의 간사장님들과 회원들이 불철주야 노력하여 국내의 전기재료 분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온 것으로 생각하며, 31회의 학술대회와 수백편의 논문발표를 보더라도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물리학회, 대한전자공학회, 대한전기학회 공동주최로 반도체 학술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경주 교육 문화 회관에서 25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는등 전기재료연구회가 한층 더 활성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국내학술대회와 논문발표등의 활성화와 더불어 국제학술대회와 국외 journal에도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전기학회 창립 50주년과 더불어 전기재료 분야의 발전은 더 한층 가속되리라 생각하며 이에 상응하는 연구와 기술개발은 전기재료 연구회의 회원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전기재료분야의 발전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내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이며, 이에 부응할수 있도록 회원여러분들의 무한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한전기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전기재료분야에서 연구하시는 학계의 여러 교수님들과 산업계의 전문가, 특히 이번에 기술 특집에 원고를 투고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대한전기학회와 전기재료 연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